

## 交換理論의 觀點에서 본 老人問題

崔 聖 載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차 례〉

- |                      |                       |
|----------------------|-----------------------|
| I. 序 論               | 7. 權力均衡化戰略            |
| II. 交換理論의 發展 및 要點    | III. 老人問題의 現象         |
| 1. 交換理論의 知的 紀元       | IV. 交換理論의 適用          |
| 2. 現代交換理論의 基本前提 및 命題 | 1. 老人問題 全體            |
| 3. 交換資源 (交換補償物)      | 2. 老人問題의 具體的 現象       |
| 4. 交換資源의 價値評價        | V. 交換理論에 立脚한 老人問題解決方案 |
| 5. 交換關係의 權力          | VI. 結 論               |
| 6. 交換關係類型의 制度化       |                       |

### I. 序 論

우리는 어떤 視角(Perspective)을 통하여 個人, 集團, 組織, 社會 및 이에 관련된 현상을 관찰하고, 서술하고 또는 설명하게 된다. 이러한 視角에는 그것으로부터 概念化와 分析이 類推되는 基本的인 思想의 指向點이 포함되며 人間과 社會의 本質에 관한 一連의 特정한 思想體系와 假定들이 반영되어 있다.<sup>1)</sup> 이러한 視角을 社會學的 理論(Sociological Theory)이라고 할 수 있는데 社會學的 理論은 19세기초 社會를 巨視的 次元에서 分析하려는 機能主義理論이 形成되면서 發展되었으며 以後 機能主義에 對한 代案的 理論으로 보다 微視的 次元에서 個人, 集團 및 社會의 현상을 分析하려는 葛藤主義理論, 交換理論, 象徵的相互作用主義理論, 現象主義理論 등이 主要理論으로 發展되어 왔다.

하나의 社會的 現象을 여러가지의 理論的 視角에서 說明할 수 있지만 어떤 現象은 特定의 理論的 視角에서 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交換理論이 巨大理論인

機能主義理論에 對한 代案으로 提唱되었으나 社會現象을 說明하는 데 많이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最近 理論自體의 精巧化作業과 더불어 그 有用性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主要한 社會學的 理論으로서의 발전의 전망이 크다고 본다.

지난 20~30 년간에 있어서 社會科學의 한 研究分野로서 體系化되기 시작한 老年社會學(Social Gerontology)은 그 理論的 發展이 빈약한 상태에 있고 개발된 社會學的 理論을 適用하는 努力도 상당히 未進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老化(Aging)와 老人問題의 現象을 交換理論的 視角에서 바라보고 分析하려는 試圖가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老人問題에 對한 새로운 理解의 視角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교환이론의 적용은 아직도 試圖的 段階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므로 지금까지의 교환이론적 시각을 통하여 산발적으로 논의되어온 老化와 老人問題의 현상을 종합정리하여 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와같은 작업은 西歐의 社會文化的 背景에서 개발된 交換理論이 韓國의 社會文化的 背景속에서 나타나는 老化 및 老人問題의 諸般現象의 分析에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評價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앞으로의 老年社會學的 研究에 있어서의 하나의 指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交換理論의 發展 및 要點

### 1. 交換理論의 知的 紀元

교환이론은 George Homans가 1961년 「社會的 行動 : 그 基礎形態(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라는 著서를 出刊함으로써 公式的인 理論으로 제기되었지만 그 思想的 起源은 多様하다. 교환이론의 사상적 연원은 크게 합리주의 고전경제학, 기능주의 인류학 및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은 推論은 現代交換理論이 주로 이들 세가지 理論들의 기묘하고 애매한 혼합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합리주의적 고전경제학적 사상은 인간은 自由경쟁시장에서 합리적인 단위로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얻으려고 하고 모든 유용한 選擇枝(Choice)를 다 고려하여 他人과의 거래에 있어서 비용을 극소화하고 利益이나 效用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sup>3)</sup> 기능주의적 인류학적 사상은 상호교환은 교환되는 물질의 가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받은 호의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호혜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을<sup>4)</sup>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른 호혜적인 교환행위자체는 社會의 응집력을 높이고 통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sup>5)</sup> 행동주의 심리학적 사상은 인간의 마음을 관찰가능한 것으로 보고 인간은 보

상을 바라고 벌이나 고통을 피하려는 속성에 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행동은 계속하고자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얻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sup>9)</sup>

## 2. 現代交換理論의 基本前提 및 命題

현대교환이론은 Homans가 주로 微視的 次元에서 人間의 小集團間의 교환관계에 重點을 두고 이론을 전개한 交換行動主義와 Blau가 주로 巨視的 次元에서 社會組織間의 交換관계에 重點을 두고 理論을 전개한 交換構造主義와 Emerson이 巨視的 및 微視的 立場을 綜合하면서 交換의 形態 및 交換過程에 重點을 두고 이론을 전개한 교환형태주의 (필자가 조작한 용어임)의 세 주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주류는 각각 다른 특성으로 구분되지만 여기서는 각 주류의 특성을 논하는 것을 생략하고 전반적인 의미에서 교환이론으로서의 기본 전제와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교환이론에서는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을 “적어도 두사람간의 활동의 교환”<sup>7)</sup>으로 보고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는 “사람들 사이에 보상을 반복적으로 교환하는 것”<sup>8)</sup>으로 본다. 따라서 교환관계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동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사실 여기에 제시하는 기본명제는 Homans가 제창한 것이지만<sup>9)</sup> 후에 Blau 및 Emerson도 이를 기초로 하였고 또한 수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교환이론에서 일반적으로 통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1) 성공명제 : 개인의 특정행위에 대한 보상이 자주 주어질수록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

(2) 자극명제 : 과거의 자극이 보상을 가져왔고 현재의 자극이 과거와 비슷할수록 개인은 과거와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커진다.

(3) 가치명제 : 개인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그 개인 행위자에게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4) 박탈-포만명제 : 최근에 행한 어떤 개인의 특정행동이 특별한 보상을 자주 받았을수록 앞으로 행하는 똑같은 행위의 가치는 더 적어진다.

(5) 공격-인정명제 : ①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기대하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외의 벌을 받게되면, 개인행위자는 화를 내게되며 더욱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격적 행동은 더 가치있게 된다. ② 어떤 행위에 대하여 기대이상의 보상을 받거나 또는 기대하던 벌을 받지 않게 되면, 그는 기뻐하게 되며 더욱 더 그러한 인정받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의 결과는 그에게 더욱 더 가치있게 된다.

(6) 합리성 명제 : 사람은 서로 대안적인 행위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 결과의 가치와 그 결과를 얻는 확율을 곱한 것이 더 크다고 지각되는 행위를 선택한다.

위의 6가지 명제들을 요약하면 어떤 특정행동의 가능성은 ① 과거에 받은 보상의 빈도 ② 받은 보상의 가치 ③ 과거의 보상받은 행위의 상황과 현재상황의 유사성 정도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 합리적인 선택행위는 이익이나 보상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택하게 된다.

### 3. 交換資源(交換補償物)

교환관계의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交換資源이며 사회적 교환의 교환자원에는 물질적인 금전과 물품 이외의 비물질적인 감정 및 여러 종류의 서비스도 포함되며 이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교환된다. 비물질적인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것은 認定(approval), 존경, 복종, 사랑, 애정, 심리적 지지, 문제해결,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 개인적인 매력 등이 있다. 교환관계에서 먼저 제공된 것에 대해 돌려주거나 돌려받게 되는 것을 교환보상물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교환자원과 같은 것이 된다. Blau는 교환보상물질의 일반화된 형태를 ① 돈 ② 사회적 승인 ③ 존중이나 존경 ④ 복종으로 구분하고 그들의 가치에 대하여 등급을 매겼다. Blau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회관계에서 돈은 적당치 못하고 가장 가치가 낮은 것이며 사회적 승인도 별로 가치있는 것이 못되고, 존경과 존중도 처음에는 가치가 높지만 자주 제공될수록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가치가 큰 보상물은 복종이며 복종을 끌어내게 될 때 동시에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종을 끌어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보상이 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써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무서운 댓가를 부과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11)</sup>

교환관계에서 제공될 수 있는 자원의 소유정도와 제공할 수 있는 정도는 교환관계의 형태와 과정을 결정한다.<sup>12)</sup>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교환자원은 교환과정에서 불균형된 교환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불균형은 결국은 권력과 복종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교환자원을 한편 권력자원(Power Resource)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13)</sup>

### 4. 交換資源의 價値評價

교환자원의 유용성은 그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교환관계에 있어서 행위자는 그 행위에 투입된 비용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원리가 반영된 것이 Homans의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이고<sup>14)</sup> Blau의 공정교환(Fair Exchange)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교환보상물의 가치를 평가할 것

인가가 문제이다. 교환되는 것이 금전 이외의 물품, 정신적인 것 및 서비스인 경우는 종류가 다르고 또한 질도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가치평가는 곧 교환의 정당성 또는 공평성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금전 이외의 교환자원의 경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의 척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는 교환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미로서 가치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교환자원 또는 교환보상물은 행위자가 거기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한 그것은 교환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의 정도도 평가된다.<sup>15)</sup> 사회적 행위의 교환적 상황과 교환자원은 반복되는 행위로 경험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주관적인 평가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험이 없는 가운데서는 원천적으로는 교환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주관적인 평가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환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과 접선되는 공통역이 되는 것이다.<sup>16)</sup>

### 5. 交換關係와 權力

교환관계에서 상호간에 이익을 가져오는 교환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누구나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교환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호혜적인 것이고 균형된 교환이 되는 것이다. 균형된 교환관계는 보유하고 있는 교환자원이 충분하고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자기가 바라는 이익 또는 보상을 끌어내게 될 때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환관계는 반드시 균형된 결과를 가져오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환자원의 불충분, 자원의 가치 저하 등으로 교환조건에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한편이 다른 한편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A가 B에게 제공한 만큼의 가치있는 자원(보상)을 A가 B에게서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날 때 A의 B에 대한 의존성보다는 B의 A에 대한 의존성이 훨씬 커져서 불균형적인 교환이 성립되며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권력(Power)을 갖게 된다. Emerson은 권력을 의존의 관계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위자 A가 B에 의존하는 정도( $D_{ab}$ )는 B에 의해서 제공되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A가 투자한 자원의 정도에 비례하고 A가 원하는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출처가 B이외에 얼마나 많은가에 반비례한다.<sup>17)</sup> 이러한 관계에서 A가 B에 의존하는 정도가 B가 A에 의존하는 정도보다 크면 B는 A에 대해서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A의 B에의 의존( $D_{ab}$ )은 B의 A에 대한 권력( $P_{ba}$ )과 같다는 것이다. ( $D_{ab} = P_{ba}$ )

### 6. 交換關係類型의 制度化

사회적 행위자(개인, 집단 또는 조직)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떤 교환조건에서의 교환관계가 성립되면 이러한 관계가 반복되게 되며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交換形態의 類型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은 制度化되고 正當化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어떤 교환관계의 형태가 제도화되는 것은 교환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한 상호작용의 교환유형이 쌍방간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회의 실체도 결국은 행위자간의 교환유형이 제도화되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9)</sup>

교환관계에 들어가는 행위자는 가능한 한 대등한 입장에서 호혜적, 상호의존적, 균형화된, 그리고 공평한 교환관계를 형성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교환관계는 교환조건이 동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최초의 교환관계가 교환자원의 불균형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의존적 관계가 생기고 결국은 이 의존적 관계는 상대방에게 권력을 부여하게 됨은 앞에서 언급된 바 있다. 교환관계가 형성되는 처음부터 이러한 권력-의존의 관계가 내재해 있게 되면 이러한 관계가 반복되면서 유형화되고 이러한 유형이以後의 교환관계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制度化되고,<sup>19)</sup> 이로써 그러한 교환유형이 정당화되게 된다.

최초의 교환관계가 교환유형을 형성하지만 일단 어떤 교환관계가 유형화되면 이러한 유형화된 교환관계가 같은 종류의 교환관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균형적인 조건에서 출발된 교환관계는 균형적인 교환유형을 형성하겠지만 불균형적인 조건에서 출발된 교환관계는 불균형적인 교환관계의 유형을 형성하여 이후의 같은 종류의 교환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권력도 하나의 교환자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권력이 큰 쪽은 또한 교환관계에 있어서의 교환조건(교환비율)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sup>20)</sup>

### 7. 權力均衡化 戰略

불균형된 교환관계에서 의존성이 커서 권력적 열세에 처하게 되는 쪽은 교환관계를 균형화시키려 하고 교환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 또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권력 불균형은 의존적 상태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Emerson은 균형화의 전략으로 ① 자원투자철회 ② 권력관계망의 확대 ③ 자격 및 지위의 획득 ④ 연합적 행위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sup>21)</sup> Blau는 Emerson의 전략을 재정리하여 ㉠ 원하는 보상없이 지내는 것 ㉡ 같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원천의 개발 ㉢ 상대방의 보상에 상응하는 다른 교환자원의 획득 ㉣ 강제력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sup>22)</sup> 여기서 ①과 ㉠, ②와 ㉡, ③과 ㉢는 서로 비슷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④와 ㉣는 서로 다른 전략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Emerson과 Blau가 제시한 균형화 전략을 다시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자원으로의 보상 : 교환관계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상을 하기를

원하지만 같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는 받은 보상과 가치적 면에서 같거나 비슷한 자원을 획득하여 보상함으로써 불균형을 상쇄할 수 있다.

(2) 다른 보상의 원천을 개발 : 필요로 하는 보상을 현재의 의존자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일부 또는 전체를 구할 수 있음으로써 의존관계의 정도를 줄이거나 균형화시킬 수 있다.

(3)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의 획득 :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지식을 습득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새로운 지위로 자신을 부상시킴으로써 교환자원의 가치와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강제력의 사용 : 육체적인 힘, 보상의 철회, 위협 또는 윤리나 도덕 아니면 인도주의에 호소하여 죄책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5) 연합적인 활동 : 같은 처지의 동료 또는 다른 집단과의 연합으로 집단적인 권력을 형성하여 공정교환 또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6) 원하는 보상이나 욕구충족을 포기하는 것 : 자기가 원하는 보상이나 서비스를 상대방에게서 받지 않고 참고 지냄으로써 교환관계의 불균형을 개선하거나 또는 불균형적인 교환관계형성의 가능성을 미리 배제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것과는 다른 하나의 전략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7) 소유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교환자원을 질적인 면에서 향상시킴으로써 저하된 자원의 가치를 높여 교환관계의 균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분야의 최선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거나 또는 향상시킴으로써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 Ⅲ. 老人問題의 現象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韓國社會에서 나타나고 있는 老化 및 老人에 관한 問題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餘暇時間의 處理問題 : 평균수명의 연장과 정년퇴직제도는 노령기를 연장시키고 있다. 현재 60세에 도달한 사람의 평균기대 수명 즉 期待餘命은 남자가 약 13년 여자가 약 18년이 되고 있는데,<sup>23)</sup> 서기 2000년이 되면 남자는 14년 여자는 21년으로 연장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sup>24)</sup> 실제 사회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은 퇴직연령부터라고 보면 우리 사회의 노인은 55세부터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면 노년기는 전체 인생의

1/3 이상이 되는 긴 시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의 특별한 역할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노인은 역할없는 역할(Roleless Role)<sup>25)</sup>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사정의 악화,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등으로 노인들은 여가시간의 처리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나. 經濟的 問題: 퇴직으로 인한 수입절감 및 무수입의 상태에서 대부분의 우리사회 노인들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다. 노령기의 사회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현재 70%이상의 노인이 의식주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와 용돈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다.<sup>26)</sup>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족생활주기상 가장 많은 지출이 요청되는 시기에<sup>27)</sup> 퇴직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1981년의 한국 Gallup 조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1% 정도가 경제적 문제가 건강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근심적정거리라고 대답한 것은<sup>28)</sup>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健康保護의 問題: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한 국면이며 가장 소중한 개인 자원이다. 건강은 개인의 私的 생활에서 자신을 유지시키고, 社會的인 生活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할 뿐 아니라 社會心理的인 면에서 自己自身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활의 만족감과 자기가 속해있는 社會的 組織網에로의 통합에 기여하는 주요한 要因이 된다.

老齡期에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老化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문제는 노령기에 건강 보호와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노인 건강의 특성은 ①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床病率이 높고, ② 질병이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③ 질병이 합병적인 경우가 많아 빈번하고 장기적인 의료적 보호를 요하게 되고 다른 人口집단에 비하여 교액의 진료비를 요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sup>29)</sup>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의료적 보장의 정도는 의료보험으로 42.8%, 의료보호로 11.7%의 전체 노인의 5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sup>30)</sup> 의료보장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45%는 적절한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므로 노인의 건강보호는 가장 중요한 노인문제의 한 국면이 되고 있다.

라. 役割喪失의 問題: 퇴직은 가장 중심적인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가정에서의 생계유지 자로서의 역할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역할의 상실은 自我確認 및 自我支持의 기반을 상실하여 자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대부분의 임금노동자의 정년이 55세로 고정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는 퇴직의 문제는 더욱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세대 가운데 임금노



동자로서의 정년퇴직의 과정을 거친 노인들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산업화는 생계유지의 일반적인 방법을 고용관계에 의한 임금노동에 의존케 만들 것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년제에 의한 퇴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뚜렷한 역할의 상실 또는 변화라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역할 상실은 여가시간의 처리문제와 더불어 산업화되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노인 문제로서浮現될 것이다.

마. 社會心理的 孤立 및 疎外 : 퇴직은 노인을 社會的 生産의 一線에서 물러서게 함으로써 社會에서 고립되고 소외되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가정에서는 생계유지자로서의 힘의 상실과 사회화의 차이에 수반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유발시켜<sup>31)</sup> 가정내에서의 노인을 자녀들로부터 소외시키고 고립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변동이 급격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sup>32)</sup>

#### IV. 交換理論의 適用

交換理論은 老人問題의 現象을 說明하는 데 있어서의 有用한 하나의 理論的 視角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모든 老人問題의 現象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어떤 문제는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으나(Explanatory Power가 높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노인문제를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을 갖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한가지 이론으로 모든 사회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社會科學에서 개발한 소위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의 단점인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老人問題는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의 문제도 포함하는 노인의 개인, 집단, 조직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우선 노인문제를 전체적인 하나의 문제로 보고 여기에 교환이론을 적용시켜 보고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차원의 문제에 적용시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 1. 老人問題 全體

産業社會以前의 農耕社會에서 老人問題가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一般的으로 산업화와 공업화를 수반하는 現代化가 老人의 地位를 弱化시켜서 결국은 老人問題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sup>33)</sup> 받아들여지고 있다. Rosow는 산업사회에서 老人의 地位는 老人이 統制할 수 있는 자원, 노인이 수행하는 기능, 사회적 조직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서 구체적으로 7가지 要因이 地人의 地位를 弱化시키고 問題를 超來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재산소유 및 통제권의 약화, (2) 노인지식의 낙후, (3) 노인의 종교적 전통에의 연결약화, (4) 핵가족화, (5) 노인의 생산성 약화, (6)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적 유대성 약화, (7) 상호의존성의 약화.<sup>34)</sup> 이와 같은 7가지 요소 가운데 (1), (2), (3), (5), (7)의 5가지는 노인의 교환자원의 弱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교환자원의 부족, 가치성의 저하, 또는 고갈 등은 老人의 집단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교환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열세를 면치 못하는 지위로 하락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老人의 지위의 약화는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여러가지 면으로 노인에게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즉 교환자원의 가치저하는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권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권력의 상대적 약화는 또한 교환관계에서의 교환조건의 약세를 초래하여 결국은 老人은 개인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 2. 老人問題의 具體的 現象

### 가. 個人과 社會와의 關係에서의 問題

1) 退職制度: 퇴직제도는 교환이론으로 잘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다.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의 낙후와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약화는 노인과 경영주체와의 교환관계에서 교환자원의 부족, 고갈 또는 가치의 저하를 가져온다. 노인은 경영주체로부터 임금이라는 보상을 끌어내기 위하여 저하된 생산력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존경과 복종을 보충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노인이 제공하는 감독자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저하되고(앞의 포만-박탈 명제 참조) 이러한 존경과 복종이라는 보상은 경영주체 측에서 보면 생산적인 면에는 공헌하지 못한다. 노인의 자원의 가치저하는 권력의 열세를 가져와 노인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또는 봉급의 절감을 감수하게 된다. 이리하여 경영주체의 퇴직요청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노인들에게 되풀이되면서 類型化되고 결국은 制度化되게 된다.<sup>35)</sup> 다시 말하면 노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교환자원의 부족 또는 가치의 저하로 권력이 약화되고 결국은 생산적인 活動의 一線에서 밀려나 퇴직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2) 經濟的 問題: 노인은 생산적 현장에서 물려남과 퇴직연금 또는 노령연금의 수혜, 또는 의료보장 등을 교환하게 된다. 이러한 교환형태는 경제주체(또는 사회단체, 국가 등)에 비해 老人의 권력자원의 약세로 불균형적인 교환관계로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권력이 큰 행위자는 교환조건을 자기에게 유지하도록 지배할 수 있게 된다(앞의 교환관계 유형의 제도화 참조)<sup>36)</sup> 즉 노인이 전생애 걸쳐 사회에 투자한 것 만큼에 상응하는 배분적 정의

가 구현된 공평한 교환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퇴직후의 경제적 사정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퇴직전에 비하여 크게 악화되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37)</sup> 이러한 불공평한 교환관계는 산업사회에서는 개선되기 힘들지만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인구의 상대적 증가와 노인자신들의 불리한 입장을 자각하여 노인끼리의 연합적 전략을 펴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여(예를 들면 투표권을 행사하여) 보다 균형적 교환 또는 공정교환의 사회보장제도를 수령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役割喪失, 餘暇時間問題: 職業的役割遂行을 제공하고 보상으로 얻는 것은 물질적인 것 외에 自己實現, 自我支持, 또는 自我確認을 통한 사회심리적 만족감이 있다. 즉 직업적 역할수행과 사회심리적 만족감을 교환하게 되는 데 사회적 역할수행의 중단은 곧 사회심리적 만족감을 끌어낼 수 있는 교환자원의 투자의 길이 막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적 역할수행의 中斷者는 자아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종전의 사회적 역할을 대치할 수 있거나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역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노인에게는 자아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더욱 더 결핍되므로 역할상실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sup>38)</sup> 社會는 개인이 직업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일을 하는 것을 사회적 윤리규범으로 삼고 있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산업사회가 될수록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을 직업적 역할수행이라는 윤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신에 일정한 연령이상에서는 직업적 역할수행을 하지 않아도 비정상이 아니며 직업적 역할 수행의 의무와 속박에서 벗어나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노인은 직업적 역할수행에서의 벗어나함과 여가활동의 인정과 정당성을 교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환은 사회가 단순히 여가시간만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 데만 그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가시설, 프로그램,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노령기의 역할모델을 정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결국은 불균형적인 교환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55세의 이른 나이를 퇴직의 정년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반면에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역할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시설과 Program이 全無한 우리사회에서는 더욱 더 불균형적인 교환이 되고 있는 것 같다.

4) 社會的 孤立 및 疎外: 교환자원 또는 교환보상물의 가치저하, 결핍, 고갈 등은 교

환관계의 형성 그 자체마저 어렵게 하는 수가 많고 또는 교환자원의 상대적 우위에 있는 측이 일반적으로 교환관계를 지배함으로써 교환자원의 열세자는 교환관계의 형성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참여한다고 해도 상대적인 무력감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노인은 社會와의 관계에서 소외와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즉 노인이 퇴직되는 것은 노인의 상대적 무력감의 표시이고 퇴직후에는 社會와의 관계에서 노인이 가진 교환자원의 가치성이 인정되지 못하여 社會는 일반적으로 노인을 社會속에 다시 참여시키는 것을 별로 원치않게 된다.

#### 나. 個人과 個人 및 個人과 家族과의 관계

1) 經濟的 問題: 농경사회에서는 土地가 가장 큰 자산이었고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있었으며 사망시 상속 또는 자녀들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므로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재산권을 가지고 자녀를 통제할 수 있었으므로 노인이 교환자원인 토지는 가치가 있었고 따라서 자녀들과의 교환관계도 지배할 수 있었다. 산업사회가 될수록 경작토지의 가치는 저하되고 생업수단은 산업화에 따라 발전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임금노동 위주로 되고 있으며, 재산 또는 물질적인 보상물의 원천도 다양해진다. 특히 우리 社會는 자녀양육 및 교육 뿐 아니라 심지어는 결혼에 까지 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경향이 있어 노후에 있어서의 경제적 자원이 결핍되거나 고갈되는 상태에 이르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노인의 경제적 교환자원이 결핍 또는 고갈된 상태에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물질적 및 정신적인 것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물질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는 투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투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보상이 불확실한 가운데 과도히 투자하여 이에 대한 기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많은 심리적 불만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교환관계로 보는 자체가 문제가 없는 바 아니지만 부모의 투자는 자녀로부터의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교환적 관계로 보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노후의 교환적 보상의 기대가 불확실한 속에서 노후에 이용가능한 경제적 자원까지의 과도한 투자는 교환관계의 원칙을 감안치 못한 것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안겨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家族内에서의 除外: 재산의 축적이 없는 가운데서 퇴직으로 인한 가족에 대한 경

제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노인의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노인의 경제적 자원면에서의 가치가 저하되고 또한 가사운영, 育兒 등에 있어서도 노인의 경험과 전통적인 지혜는 자녀들이 습득한 과학적 지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하됨으로써 자녀들과의 교환관계에서 상대적 열세에 놓이게 되고 의존적이 되거나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의 자녀들과의 교환관계에서 노인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의 빈약성을 노인 스스로 전혀 인식치 못하거나 윤리나 도덕 또는 혈연성에 근거하여 교환보상물의 기대와 획득을 강조하게 될 때 가정내에서의 노인과 자녀간에 문제는 유발되고 노인은 심리적 갈등에 빠지게 되거나 가사의 결정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은 가정에서도 자녀들로부터 소외당하거나 고립되는 사회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들에게 유용성이 있는 행위를 제공하고 자녀들로부터 어떤 형태로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老人은 자녀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Boyd는 오늘날 노인들의 지위는 인척관계나 전통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의 相互互惠의 原則으로 획득되어지는 경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9)</sup>

3) 近隣 및 親舊關係의 問題: 老齡期에 있어서는 가까이서 相互 交換關係를 가질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을 잃거나 멀리 헤어지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반면에 새로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되지 않아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됨으로써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게되는 문제가 흔히 발생한다. 같은 時代에 태어나 같은 歷史的 및 社會的 상황을 경험한 동년배(Age Cohort)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교환자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년배끼리 빈번한 상호작용을 갖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sup>40)</sup> 이는 교환관계가 서로 비슷한 정도의 교환자원 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이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불균형적인 교환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관계는 가능한 한 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은 자기들 동년배끼리 나아가서는 노인들끼리의 친구관계를 가짐으로써 상호의존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의 균형적인 교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노인은 자기 동년배끼리 친구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연령자체가 권력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고 또한 연령등급화(Age grading)의 규범이 아직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이 동년배집단의 범위를 넘어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

다. 그러므로 같은 老人世代까지 또는 동년배중에서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는 사회심리적 면에서의 소외와 고독의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한편 연령적 차별 또는 격리(Age segregation)의 현상을 초래하고 이로써 老人의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러한 친구관계의 형성은 특수한 경우로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나 경험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가설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이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로 하겠다.

### V. 交換理論에 立脚한 老人問題解決方案

社會的 또는 個人的인 問題를 어떤 一定한 視角에서 分析하였다면 그러한 視角에서 問題解決의 方案도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老人問題의 現象을 改善 또는 解決할 수 있는 方法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老人問題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노인이 갖고 있는 교환자원의 價値가 저하됨으로써 交換關係에서의 不均衡이 起來되고 이러한 不均衡은 老人으로 하여금 개인, 집단 또는 사회에 依存케 만들고 이로써 老人의 權力 또는 힘이 상대적으로 弱化되는 權力-依存의 關係에서 교환행위를 하는 데서, 그리고 또한 권력적 지위를 얻은 측이 老人과의 交換關係를 不均衡的으로 支配하게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對策은 곧 老人의 交換자원의 價値를 높이거나 또는 老人의 권력이나 힘을 증가시켜 均衡的이고 相互依存的인 交換關係를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均衡化의 전략(II의 7)이 곧 對策的인 方案으로 이용될 수 있다. 老人의 問題를 社會政策的인 面으로 또한 Social Service 的인 面으로 解決하기 위한 對策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7가지 중 ① 다른 보상의 원천개발, ②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의 획득, ③ 연합적인 활동, ④ 소유자원의 질의 향상이라는 4가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른 보상의 원천 개발: 노인의 경제적 수입원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① 재취업 Program, ② 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및 연금액수의 적절한 인상, ③ 노인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 도입, ④ 최저수준의 생활보장과 의료적 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의 확립, ⑤ 노인을 모시는 가족에 대한 주택임대 및 분양의 우선권 부여, ⑥ 노임수당지급 등.

(2)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의 획득: ① 특별한 전통적인 공예기술의 습득, ② 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의 훈련을 받는 것, ③ 노인을 사회적 봉사활동이나 기타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집단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Program의 개발 등.

(3) 연합적 활동: ①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대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행동(Social Action)의 전개 또는 정치적 압력을 위한 투표권의 연합적 행사, ②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Stereotype)을 개선하기 위한 노인자신들의 활동과 이를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

(4) 소우자원의 질의 향상: ① 성인교육을 통한 일반적인 교육수준 향상, ② 자기직업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Program의 제공 등.

## VI. 結 論

以上에서 交換理論의 要點을 정리하고 이를 老人問題의 分析에 적용하는 것을 시도해 보았다. 이와 같은 시도는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의 시도인 만큼 경험적 차원에서의 검증이 따라야 할 것이다. 교환이론의 발전배경이 합리주의적, 공리주의적 및 개인주의적 가치에 의해 지향된 서구사회 특히 美國社會인 만큼, 서구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발전된 이론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경로효친 사상과 체면유지 가치관이 아직도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現代化와 더불어 교육의 대중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韓國社會는 그 價値觀이 점차 합리주의적,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론의 적용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보며 체면유지 자체도 그 裏面에 교환이론적 사고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 적용의 타당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믿는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노년사회학의 이론정립과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적인 면에서도 큰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國內 一部の 老年學研究者들이 老人問題를 交換理論的 視角에서의 分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는 만큼 교환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交換理論的 視角은 老人問題의 分析과 이에 대한 社會的 對策를 수립하는데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임상적인 기초이론으로서도 유용성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

## \*\*\* 註 \*\*\*

- 1) Earl Rubington & Martin S. Weinberg,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3rd.e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p. 9 ; Amitai Etzioni, *Social Problem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76), p. 2.
- 2) Jonathan H. Turner,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Rev. ed. (Homewood : Ill : The Dorsey Press, 1978), p. 201 ; Ruth A. Wallace & Alison Wolf,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80), pp. 165-172.
- 3) Turner, op. cit., p. 202
- 4) Alvin W. Gouldner, "The Norm of Reciprocity :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April 1960), p. 171.
- 5) Doyle P. Johnson, *Sociological Theory : Classical Founders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New York : John Wiley & Son, 1981), pp. 345-346 을 볼 것, Levi-Strauss 는 교환을 한정된 교환(limited exchange)과 일반화된 교환(generalized exchange)로 구분하고, 한정된 교환 즉 쌍방간의 교환관계에서 호의를 받은 사람이 호의를 준 사람에게 직접 돌려주는 관계(A→B)보다는 일반화된 교환 즉 3자 이상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은 것을 그 호의를 베풀어준 당사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에게 돌려주는 관계(A→B→C→D→A)를 통하여 사회적 통합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 6) Turner, op. cit., pp. 212-215.
- 7) George C. Homans,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 1st. e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1), p. 13.
- 8) Homans,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 Rev. e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4), p. 51.
- 9) Ibid, pp. 16-50.
- 10) Wallace & Wolf, op. cit., p. 174.
- 11) Turner, op. cit., p. 253.
- 12) Ibid., pp. 294-295.
- 13) James J. Dowd, "Exchange Rates and Old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 35 (July 1980), p. 597.
- 14) Homans, *Social Behavior : Its Elimontary Forms*, 1st. ed. pp. 72-78.
  - 15) Peter Singleman, "Exchange As Symbolic Interaction : Convergences between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August 1972), pp. 416-417.
  - 16) Ibid., pp. 416-417.
  - 17) Richard M. Emerson, "Power-Dependence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Jan. 1962), p. 32.
  - 18) Turner, op. cit., pp. 279-284.
  - 19) Roderick Martin, "The Concept of Power : A Critical Defenc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2(Sept. 1971), p. 254.
  - 20) W. Peter Archibald, "Face-to-Face : The Alienating Effects of Class, Status and Power Divis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October 1976), p. 821
  - 21) Emerson, op. cit., pp. 35-40.
  - 22) Johnson, op. cit., p. 369 ; Sarah H. Matthews, *The Social World of Old Women : Managemant of Self-Identity*( Beverly Hills, C. A. : Sage Publications, 1979), p. 124.
  - 23) 金正根, "老人保健의 現況과 對策," 韓國老年學, 4(1984), p. 62.
  - 24) Ibid., p. 63.
  - 25) 최신덕역, 老年社會學(서울 : 경문사, 1986), p. 109.
  - 26) 필자가 1986년 1월 서울, 인천지역의 노인 100명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농촌노인 100명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조사한 결과의 분석에 의하면 생활비의 출처가 본인 및 배우자의 벌이인 경우가 26%, 자녀인 경우가 59%, 본인과 자녀인 경우가 12%, 사회복지기금인 경우가 3%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의 의존 경우는 : 자녀의 59%와 자녀 + 본인의 12%를 합하면 71%가 되고 있다. 본 조사는 표본수가 적고 전국적인 무작위 표집에 의한 표본이 아니어서 결과를 일반화 변화시키는데 문제는 있으나 본 조사의 결과는 1981년 한국 Gallup조사 연구소에서 6개국 비교연구를 위하여 전국적인 무작위 표집으로 조사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韓國老人의 生活과 意識構造(서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p. 163을

참고할 것).

- 27)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지도원 연수용 교재. 1982. p. 83.
- 28) 한국갤럽조사연구소, op. cit., p. 156.
- 29) 최성재, “의료보험과 노인복지,” 의료보험 69(1984년 5월), p. 15.
- 30) 최성재, “의료보장,” 노인복지편람(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5년) p. 553.
- 31) Sung-Jae Choi, “Modern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Aged into the Family in Korea” (Ph. D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84), p. 140
- 32) Wilbert E. Moore, “Aging and the Social System,” in *Aging and Social Policy* ed. John C. Mckimne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 1966), pp. 39-40.
- 33) Donald O. Cowgill, “Aging and Modernization: A Revision of the Theory,” in *Later Life* ed. Jaber F. Gubrium (Springfield, Ill: Charles L. Thomas, 1974) pp. 127-143.
- 34) Irving Rosow, “And Then We Were Old,” *Trans-Action*, 2 (January/February, 1965), pp. 21-23; Rosow, “Old Aged: One Moral Dilemma of an Affluent Society,” paper presented to the Washington Center for Metropolitan Studies, April 19, 1961.
- 35) James J. Dowd,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 (Sept, 1975), p. 150.
- 36) Archibald, op. cit., p. 821.
- 37) Robert C. Atchley, *Social Forces in the Later Life* (Belmont, C. A.: Wadsworth Publishing Co., 1980), p. 140를 볼 것. 퇴직직전 일년간의 소득과 퇴직후의 일년간의 소득을 비교하는 소득대체율,  

$$\left( \text{Earning Replacement Rate} = \frac{\text{퇴직후 1년간의 소득}}{\text{퇴직전 1년간의 소득}} \right)$$
을 보면 0.5이하인 사회가 훨씬 많은 것 같다.
- 38) 活動理論(Activity Theory)의 立場은 사회적 역할 수행 → 자아지지 → 자아확인 → 심리적 만족감 유지 및 향상이라는 인간적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론적 입장은 상당한 정도의 실증적 지지를 받고 있다.

- 39) R. R. Boyd, "Emerging Roles of the Four Generational Family" in *Gerontological Perspective: Issues and Perspective* ed. R. R. Boyd & D. McConatha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p. 12.
- 40) James J. Dowd, "Exchange Rates and Old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35 (July 1980), p. 599.